



KIA 백용환이 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시범경기에서 4회초 2사 2·3루 때 2타점 3루타를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기적이 필요한 ‘F1 황제’

영언론 “슈마허, 회복 가능성 희박”



스키장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포뮬러 원(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는 8일 슈마허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말을 인용해 “슈마허의 치료를 맡은 의료진이 ‘기적이 일어나야 슈마허가 회복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슈마허는 지난해 12월 말 프랑스 한 스키장에서 머리를 바위에 세계 부딪혔으며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머리 부위에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부터 의식을 회복하도록 하는 치료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다.

이 신문은 “의료진이 슈마허의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슈마허가 살아날 수 있다’며 ‘그가 깨어난다 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슈마허는 F1에서 7차례나 종합 우승을 차지한 선수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암에서 열린 F1 코리아 그랑프리에도 출전했었다. /연합뉴스



호랑이 첫 출발 ‘유쾌…상쾌’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가 시원한 타격으로 시범경기 첫 승을 기록했다.

KIA는 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시범경기 2차전에서 이범호의 솔로포 등 장단 11안타로 8점을 뽑으며 8-3 승리를 거뒀다.

전날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삼성 백정현의 호투에 막혀 3안타에 그쳤던 타선이 이범호의 한방과 함께 불을 뿜었다.

1회초 2사에서 이범호가 배영수를 상대로 좌중월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터트리며 팀의 시범경기 첫 홈런 주인공이 됐다.

선취점을 가져온 KIA는 1-1로 맞선 4회 2사에서는 우중간에 떨어진 김주형의 2루타와 김선빈의 볼넷 그리고 백용환의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보냈다.

5회에도 2루타가 나왔다. 선두타자로 나

온 이대형이 바뀐 투수 이현동을 상대로 2루타를 뽑아낸 뒤 상대 중견수 실책을 틈타 3루까지 질주했다. 이대형은 박기남의 희생 플라이로 득점도 기록했다.

KIA의 장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4-3의 1점차 리드가 이어지던 8회 안치홍·김다원이 2루타를 추가하는 등 4안타로 대거 4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1군 진입에 도전하는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스타팅 멤버로 나선 포수 백용환은 3회 선두타자로 나와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터트린데 이어 4회 2사 2·3루에서도 좌중월을 가르는 2타점 3루타를 만들어 공격 본능을 발휘했다.

안정된 수비로 내야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신인 강한울은 2루수와 유격수 자리를 오가며 수비 실력을 발휘했고, 8회에는 시범경기 7타석 만에 첫 안타를 때리며 타점까지 기록했다.

3회 대수비로 교체해 들어간 외야수 박준태는 6회 김태완의 중견수 안타 때 홈에 들어오던 2루 주자 이흥련을 홈에서 잡아내며 시원한 보살을 성공시켰다.

마운드에서는 좌완 심동섭이 눈에 띄었다. 9회 마운드에 오른 심동섭은 8개의 공으로 삼자범퇴를 만들어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심동섭은 첫 타자 우동균을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김태완의 땅볼 타구를 직접 처리하며 투 아웃을 만들었다. 또 공 하나로 김현곤을 1루수 파울플라이로 요리하면서 경기를 종료했다.

외국인 소방수 애션시오는 한국에서의 첫 등판을 성공적으로 소화했다. 송은범-임준섭-박성호에 이어 8회 출격한 애션시오는 이상훈, 박찬도, 이흥련을 모두 내야 땅볼로 처리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9km를 기록했고 위력적인 체인업도 선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승환, 日 무대 “합격”

한신 투수코치 “직구·슬라이더 볼 끝 좋다”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가 오승환(32)이 두 차례 시범경기를 통해 주 무기인 직구와 두 번째 구종 슬라이더의 위력을 확인했다.

나카니시 기요오키 한신 투수코치는 8일 “직구가 좋고 슬라이더의 공 끝도 괜찮다”고 평가했다.

오승환은 5일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경기에서 18개의 공을 던지며 1이닝 1피안타 1실점 1사구 1삼진을 기록했다. 8일 니혼햄 파이터스와 맞붙은 그는 투구 수 24개로 1이닝 1피안타 무실점 1볼넷 1삼진을 올렸다. 두 경기 모두 직구 최고 구속은 148km였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150km를 쉽게 넘겼던 오승환을 떠올리면 빠르지 않게 느껴지는 공이다. 하지만 오승환은 신인이던 2005년을 제외하고 3월 초에 시범경기에 나선 적이 없다. 그는 기온이 올라가는 3월 말에 등판해 150km를 넘는 강속구를 뿌렸다.

오승환이 안타를 맞은 공은 모두 직구였

다. 5일 소프트뱅크와 경기에서 아나기타 유키에게 145km짜리 직구를 던져 중월 2루타를 맞았고, 8일에는 스기야 겐지에게 던진 147km짜리 직구가 가운데로 몰려 중전안타를 내쳤다. 구속이 정상적으로 올라온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오승환도 “공이 물린 점은 아쉽지만 아직은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슬라이더는 벌써 위협적인 공이 됐다. 2경기 총 42개의 투구 중 36개가 직구, 6개가 슬라이더였다. 오승환의 슬라이더를 정확히 맞힌 타자는 없었다.

5일 4개의 슬라이더로 두 차례 땅볼을 유도했고, 한 개는 빗맞은 파울이 됐다. 나머지는 한 개는 볼이었다.

8일 니혼햄전에서는 두 개의 슬라이더로 파울 한 개, 헛스윙 한 개를 끌어냈다. 특히 니시가와 하루키에게 던진 134km짜리 몸쪽 슬라이더는 ‘슬라이더 활용법’의 정석이었다.



오승환은 직구 두 개로 볼 카운트 1-1을 만든 뒤 빠르게 휘는 슬라이더로 헛스윙을 유도했다. 니시가와와는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헛스윙했고, 이어 날아온 147km의 직구에 또 한 번 헛스윙하며 삼진을 당했다.

/연합뉴스

박인비 ‘지존의 위엄’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라이벌 페테르센 꺾고 시즌 첫 승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박인비(KB금융그룹)가 라이벌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세계랭킹 2위)을 꺾고 2014 시즌 첫 우승을 신고했다.

박인비는 9일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미션힐스 골프장 블랙스톤 코스(파73·6206야드)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2개를 적어냈지만 버디 8개를 잡아 6타를 줄였다. 합계 24언더파 268타를 적어낸 박인비는 챔피언십에서 맞대결을 벌인 페테르센(19언더파 273타)을 5타차로 따돌리고 1인자의 자존심을 지켰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개 대회를 포함, 세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나온 첫 우승이다.

박인비는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놓고 페테르센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지만 이번 우승으로 격차를 벌리게 됐다. 또 지난해 이

대회에서 선두를 달리다 역전패했던 아픈 기억도 씻어냈다.

페테르센과 공동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박인비는 비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서도 초반부터 버디를 낚아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3타차까지 앞서 나간 박인비는 9번홀(파4)에서 1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놓쳤고, 페테르센은 4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2타차로 좁혔다. 10번홀(파4)에서는 박인비가 1타를 잃고 페테르센이 파를 지키면서 격차는 다시 1타로 줄어들어 경기는 접전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박인비의 컴퓨터 퍼트가 홀 속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

박인비는 11번홀(파3) 그린 가장자리에 서 홀까지 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집어넣더니 12번홀(파5)에서는 두 번째 샷을 그린 가장자리에 올려 2퍼트로 마무리하며 3타차로 달아났다. 승부의 쐬기를 막은 것은

15번홀(파3)이었다. 박인비는 티샷을 홀 1m에 붙인 뒤 가볍게 버디를 잡아냈고, 페테르센의 2.5m 거리 버디 퍼트가 빗나가면서 격차는 4타로 벌어졌다.

18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박인비는 이글 퍼트를 홀 한발짝 거리에 붙인 뒤 여유있게 버디로 마무리하며 팬들에게 서비스를 했다.

박인비는 유소연(하나금융그룹)과 짝을 이룬 단체전에서도 합계 544타를 쳐 중국(572타)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유소연은 개인전에서 합계 16언더파 276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후주교포 이민지도 15언더파 277타로 공동 4위에 올라 만만치 않은 실력을 뽐냈다. 장하나(KT)와 전인지(하이트진로)가 공동 7위(13언더파 279타), 정예나가 10위(9언더파 283타)에 자리해 한국·한국계 선수 6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